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79

2017. 6. 4

2017년 주님의교회 표어

다시 거룩한 교회로!
(레 19:2, 롬 1:17)

오늘의 말씀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
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
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14

오늘의 주요기사

- 2 종교개혁 이야기
- 2-3 호국보훈의 달 특집
- 4 사랑나무 수련회
- 5 목회칼럼
- 6 아가나들이

교회 일정

- 6/9-10(금-토) 예친사 전체세미나
- 6/11(주일) 삼위일체 주일
- 6/18(주일) 박원호 담임목사 퇴임식
- 6/21(수) 창립기념 음악회
- 6/25(주일) 29주년 창립기념주일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고사리 손으로 하나됨의 소망을 적고 있는 어린 친구들 - 주님의교회 통일선교 행사 중에서

오늘, 성령강림주일을 기념하며

보통은 성령강림주일 앞에 오순절이라는 말을 붙여 '오순절 성령강림주일'이라고 부른다. 이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한다. 하지만 이 연관성은 구약까지 올라간다. 가장 먼저는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맥추절, 칠칠절)과 연관을 갖는데, 이는 유월절 이후 50번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로 첫 곡식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이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유대교에서는 이 날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로 재해석하여 기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양식(곡식)과 영혼의 양식(율법)을 공급해주신 분으로 기뻐하며 감사한다.

바로 이러한 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던 그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면서 교회는 시작된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교회의 생일처럼 여기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게 된다.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던 감사의 절기가, 율법을 받은 날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흘러 온 것이다. 한국 교회는 부활 후 50번째 되는 날, 그리고 7번째 되는 주일에 성령강림주일로 지키고 있다(올해는 6월 4일).

이러한 흐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성령강림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먼저는 성경에서 5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구원과 해방을 뜻한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원과 해방 받은 백성임을 감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상에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 날은 우리의 영육 간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기억하고 사모 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날은 율법이

자유의 복음으로 대체되는 날로서 율법으로 정죄하던 것들이 복음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6월의 달력을 펼치니 주님의 교회 창립 29주년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들어온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교회의 시작으로 여겼던 초대교회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의교회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자. 주님의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함이 있는가?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주시는 구원과 해방의 복음, 자유케 하는 복음이 넘쳐나고 있는가? 성령강림주일에 주님의 교회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해본다.

함즐함울

종교개혁 이야기 5

마르틴 루터와 95개조 반박문

이제까지 루터의 종교개혁의 배경과 그 가운데 일어난 개혁의 움직임을 하나씩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본격적인 종교개혁의 시초가 되는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446)를 소개하겠다.

체코의 종교개혁가 안 후스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의 결의에 따라 1415년 화형을 당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기 전 후스는 이렇게 예언했다. “지금 당신들은 거위(후스’는 거위란 뜻이다.) 한 마리를 태우려고 한다. 그러나 한 세기가 지난 뒤 당신들이 구울 수도 끓일 수도 없는, 한 마리의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후스가 화형대에서



95개조 반박문

예언한 백조를 마르틴 루터라고 이야기한다. 후스의 정신과 사상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후스 주의자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루터는 과연 누구인가? 또, 어떤 사상들을 전개하였기에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부화시켰다고 평가받는가?

루터는 1483년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에르프르트 대학에서 법학과 철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석사학위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제가 되기로 결심하고 수도원으로 떠났다.(그의 아버지 한스는 자기 아들이 사제가 된다고 말했을 때 매우 언짢아했지만, 후에 루터가 첫 성만찬을 집례 할 때에는 축하 사절단을 이끌고 20여 필의 말을 몰라 미사에 참석했다고 한다.)

루터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었다.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고자

자기를 채근하거나 작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러 뛰어갔다고 한다. 이것으로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가장 금욕적인 생활을 하기로 소문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의 고된 훈련을 받기도 하였고, 누구 못지않게 많은 선행도 베풀었지만 그것으로 결코 만족함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불현 듯 자신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었다. 그 단서가 되는 말씀이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1:17)’이다.

당시 독일 지역의 면죄부 판매책을 맡았던 테첼(Johann Tetzel)은 면죄부는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의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고 선전했으며, “헌금함 바닥에 동전이 짹짹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연옥(천주교의 교리 중



마르틴 루터

죽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기 전에 잠시 머무는 중간단계)에 갇혀 있던 영혼들은 화살처럼 솟아오른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복음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면죄부와 로마 카톨릭 관습의 허구성을 깨닫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城) 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였다. 지금도 개신교도들은 이 날을 프로테스탄트의 탄생일로 기억하여 기념하고, 올해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 정확히 5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박주영 전도사

호국보훈의 달 특징

지금 - 여기의 ‘호국’을 생각한다

신학적으로 살펴본 ‘호국’과 ‘평화통일’의 의미

6월 6일은 제62회 현충일. 흔히 현충일과 6·25전쟁 발발일이 들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부른다. 올해 호국보훈의 달 행사는 ‘나라를 위한 고귀한 희생,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을 추모하고, 이 숭고한 희생을 국민통합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 치러질 예정이다. <함줄함울>에서는 ‘호국의 달’을 맞아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호국’은 어떤 의미인지, 평화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최근의 여러 신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아래에 소개하는 책들은 이 글의 참고도서이자, ‘호국’과 ‘평화통일’에 대한 신학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책들이다.

함줄함울

지금 ‘호국’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까닭

6월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분들을 기리며, 또한 호국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보는 달이다. ‘호국’은 ‘외부의 세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호국’은 지극히 마땅한 사명이다. 그러나 한반도에서의 ‘호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일반인에서 기독교인의 입장으로 옮겨서 보기 위해서는 한 단계 다른 성찰이 필요하게 된다. 한반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현재 분단국가로, 역사를 같이 했던 동족과 군사적 대치상

황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열강과의 미묘한 세력 다툼의 균형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호국’의 원칙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호국’, 그 실천적 의미의 변화 - 일제강점기와 냉전 시대

사전적 의미의 ‘호국’은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으나, 현실적이고 실천적 의미의 ‘호국’의 내용은 주변 정세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되어 왔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호국’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는 것이고, 독립운동은 ‘호국’의 가장 강력

하고 적극적인 실천행위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가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양분되었던 냉전 시기에는, 호국의 정신을 바탕으로 대적해야 하는 대상은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였다. 한반도는 냉전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었던 한국전쟁의 무대였으며, 그 피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에 대한 경계와 혐오 역시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무렵의 ‘호국’은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자로부터의 국가 보호가 핵심 개념이었다.

‘호국’, 그 실천적 의미의 변화 - 탈냉전 시대

그러나 1989년 동유럽의 공산주의

정권이 연속적으로 붕괴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 후 사실상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 시대는 소멸되었다. 그동안 접촉은커녕 외교 관계조차 맺지 않았던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사이의 수교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교역과 여행에도 제한이 없게 되었다. 2017년 4월 기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라는 점, 한국에 있는 다문화가정의 50%가 중국 출신이고 20%가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 출신이라는 점은 이제 더 이상 냉전 시대의 이데올로기나 ‘민족’이라는 이름의 순혈주의가 ‘호국’의 안팎을 가르는 경계선이 아님을 잘 보여준다.

> 3면에 계속

>2면에서

탈냉전 시대의 '호국'은 이제 이데올로기와 순혈주의를 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범주가 확장되었다.

한반도의 통일, 진정한 '호국'의 지향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은 '기독교적 실천'이다.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복음에 비추어, 공동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올바른 실천을 행하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독교 공동체 역시 이 땅의 '호국'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종래의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를 깊이 있게 성찰할 때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여기에서 '호국'이 지향해야 하는 보다 큰 시선은 현재까지도 냉전의 유물로 남아 지속적인 군사적 긴장을 자아내고 있는 분단 시대의 극복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신학자들의 주장이다. '통일'이라는 자연스러운 명제는 그래서 '호국'의 가장 큰 목적이 된다.

기독교인에게 필요한 통일의 섭리

그러나 통일은 말로만 노래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우리 스스로 그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과정을 꼼꼼하게 예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기적처럼 오기는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더라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오히려 혼란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한 큰 불행을 낳을 수 있다.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누적된 표면적이고 물리적인 차이뿐 아니라 문화적, 정서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문제점들 역시 가법계 볼 수 없는 장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원하는 평화로운 통일은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망을 철저히 믿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과연 하나님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시는가, 이다. 통일에 대한 신학적 당위성이 확인되어야, 기독교인이 신앙인으로서 통일을 '호국'의 바른 방향으로 택하는 것의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통일의 의미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형제자매끼리 불화하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원하신다. 예수님께서 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의 화목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셨다(마 5:23-24). 하나님은 '분단'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 가족과 이웃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 또한 분단 상황 자체를 빌미로 남한과 북한 양쪽 모두 정치·경제적인 왜곡과 폭력적인 상황이 자행되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권의 제약이 정당화된다는 점에서도 분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 아니다(마 22:37-40, 요 13:34-35). 하나님은 만물이 통일되어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엡 2:4, 롬 12:1)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사명이다. 통일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목표는 아니지만, 적어도 '호국'의 목표이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중요한 표점인 것은 분명하다.

평화통일을 위한 과제

그런 의미에서 평화통일을 꿈꾸고, 그 과정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금-여기의 '호국'이 된다. 통일은 지난 70년간 격리되어 있었던 두 공동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통일의 시기를 뒤로 물릴 가능성이 있다. 평화통일은 서로의 잘못을 용서하고, 상대방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언젠가 궁극적으로 서로의 상처가 회복되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소망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독교인은 이와 함께 신앙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 평화통일에 신앙적인 차원이 요구되는 이유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아집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형제자매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형제자매라는 것을 인식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통일이 되도록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호국'의 길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교인들의 역할과 책임이 작지 않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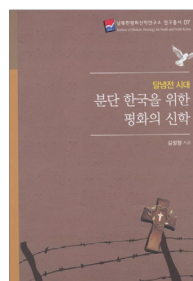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현실주의 - 라인홀드 니버를 중심으로〉 남태욱 지음, 니눔사, 2012

라인홀드 니버는 기독교 윤리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 많은 업적을 남긴 신학자이다. 그의 신학은 궁극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을 '정의'라고 보고, 정의의 추구를 위해서 현실적인 정치논리와 힘의 균형의 원리를 따르는 기독교 현실주의를 제시했다. 이 책의 필자는 기독교 현실주의가 말하는 힘의 균형으로서의 정의가 군사력에 의존한 거짓 평화를 추구하게 되는데, 이는 폭력과 전쟁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어려우며, 한반도의 분단도 극복되기 어렵다고 보고, 진정하고 정의로운 평화의 신학이 통일신학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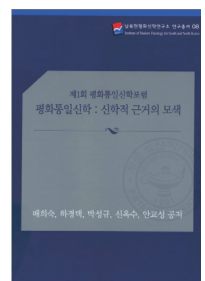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우택 지음, 새물결플러스, 2014

북한과 통일 문제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성찰해야 하는지를 9명의 영역별 전문가가 분석한 책. 남북한의 평화와 통일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60여 명의 석학이 모여 조직된 크리스천 싱크탱크의 연구 결과물이다. 북한과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 내부의 시선을 정치적·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역사적·신학적 관점으로까지 확대해서 진단했다. 통일의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가치를 떠나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을 평화와 사랑이라는 기독교적 가치를 바탕으로 포용해야 하는 것이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며 기독교적인 가치임을 설명하고 있다.



〈탈냉전 시대 분단 한국을 위한 평화의 신학〉 김정형 지음, 니눔사, 2015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냉전 시대의 유물인 분단 상황에 머물러 있는 한반도를 바라보는 신학적 탐구를 보여주는 책. 이 책은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를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시선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보고, 상황 신학으로서의 평화의 신학,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평화의 복음,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한 온전한 신학에 대하여 고찰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계 내부에 있는 여러 신학적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준하여 비교 분석한 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성경적 모델에 대한 성찰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평화통일신학 : 신학적 근거의 모색〉 배희숙 외 지음,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015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신학적 연구를 위해 설립된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논문을 모은 책. 에서/에돔, 야곱/이스라엘의 사례에서 나타난 통일신학의 의미, 신명기 요시아의 개혁운동을 통해서 바라본 통일신학, 평화통일의 신학적 근거로서의 기독교 화해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약 시대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인간의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 나라 신학의 지향이 평화통일신학과 맞닿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사역팀

아름다움을 전하는 섬김의 손길



매월 첫 일요일 남천경로당에서 파마를 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동글게 영어진 파마 웨이브에 지난 세월의 회한과 추억이 밀려온다. 봉사하는 분들과 받는 분들 모두 마음은 신록의 계절에 아름다움이 녹아드는 것을 느낀다.

주님의교회 미용사역팀에서는 17분의 봉사자들이 한 달에 7군데 국내선 교봉사를 담당하고 있다. 마천동 남천 경로당, 하남 다문화센터, 행복요양원, 안성 하나원, 길동 요양데이 케어센터, 경찰 병원과 거여동 참병원

등에서 독거 어르신들과 장애인, 치매 환우 분, 새터민, 다문화 식구들, 병원의 환우 분들과 미자립교회 교우들 그리고 사단법인 섬김과 나눔을 통해 중환자 생활지원자들을 직접 찾아가 몸과 마음을 예쁘게 가꾸어 드리며, 주님이 주신 섬김의 손길을 통해 주 안에서 훈훈한 정을 서로 나눈다. 팀원들은 주중에도 교회에 모여 동역자간의 친교를 나눔과 동시에 활발한 미용학습세미나에 참여함으로써, 늘 깨어서 주님의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

미용사역팀

수련회

사랑나무 수련회



사랑나무는 지난 5월 13일과 14일에 춘천으로 1박 2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약 50명의 인원이 함께했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림으로써 모든 시간이 주님께 속하였음을 고백한 우리는, 푸르른 자연 속에서 '함께' 좋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숨겨둔 노래, 춤 실력을 뽐내 교사들을 놀라게 해주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한 데 어우러진 계주 시합은 승패를 초월하는 하나됨의 현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세족식을 했습니다. 어머니

들께서 학생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미리 준비한 편지와 기도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둘러앉아 각 학생과 가족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어떻게 응답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요?

이미 추억이 된 수련회를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수련회를 위해 물질과 기도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채인 전도사

기도문

우리는 가련한 눈으로만 사랑나무를 보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해 온 한 마리 작은 참새 같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봄을 주시어
죽은 것만 같았던 딱딱한 대지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나뭇잎이 소생하고, 생명이 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은 존귀한 생명으로 제 아들을 빚으셨건만
아직도 저는 그에게서 주님의 존귀한 생명을 보지 못한 채
가련한 눈으로만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게 주님의 눈과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빚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대할 수 있도록
저를 바꾸어 주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아들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살다가
주님의 날개로 뽕으시는 날,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소서.

아들에게 사랑나무 친구들을 보내시고, 선생님들을 붙이시고,
기도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자라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희준이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섬기시며,
몸과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한자리에서 형자 자매됨의 나눔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한상에서 먹고 마시는 식탁이 천국의 식탁이 되게 하시고
이곳 아름다운 자연에서 누리는 친교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아들의 영육간의 연약함을 고치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들이 되게 하소서.

육체의 연습은 물론,
더 강건해지기 위하여 감내해야 할 작은 훈련들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하여 지금보다 더 강건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걸어갈 날들이 때로는 힘겹고 눈물 나는 날들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감화로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아파하는 인생의 길손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가진 것 없사오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을 우리의 약함과 고통에 부으사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 삼으셨으니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 영광을 이곳에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 사랑나무 세족식에서 한 어머니의 기도

목회칼럼

주께서 주시는 자유의 삶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해 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것이다.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한다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누군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랑은 자기를 뛰어넘는 이타성에 그 근거를 두지만 타락한 인간은 늘 자기중심적 삶을 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얻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가끔 생각해본다.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읽게 되는 성경,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묵상의 삶, 성도들로부터 받는 사랑 등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경험하는 유익은 참 많은 것 같다. 그 중에 하나, 내가 목회하면서 얻는 유익이라고 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교회처럼 큰 교회에서는 더 그렇다. 만남은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다. 특별히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예전엔 이해 못했던 사람도 오랜 시간 만나서 얘기하다보면 어느 순간

'아 저 사람이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가고, 결국 수용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그런 생각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라 해도 적어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가게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예전엔 그 사람과의 '함께함'이 불편하게만 다가왔는데 이젠 어느 정도 그 불편함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는 그 사람과의 함께함이 불편함이 아닌 하나님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나도 만나면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한 편한 사람이 있다. 아직 내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여전히 이해하기 힘든 사람도 있다. 이는 또한 여전히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나 틀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함께함'이 불편함이나 어색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움으로 다가오리라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유가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도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 **임창진 목사**

겨자씨

봄꽃 가정 세미나

지난 5월 14일 주일, 주님의교회 10교구(담당 허준 목사)는 가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10교구는 매 주일 겨자씨 모임을 소그룹으로 진행하고, 매 학기 1~2회 전체 모임을 갖는다.

이번 모임은 '복된 가정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김영실 교수(총신대)를 모

시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유대인의 가정교육 방법과 그들의 성공 비결이 주된 내용으로,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그들 교육의 핵심이었다. 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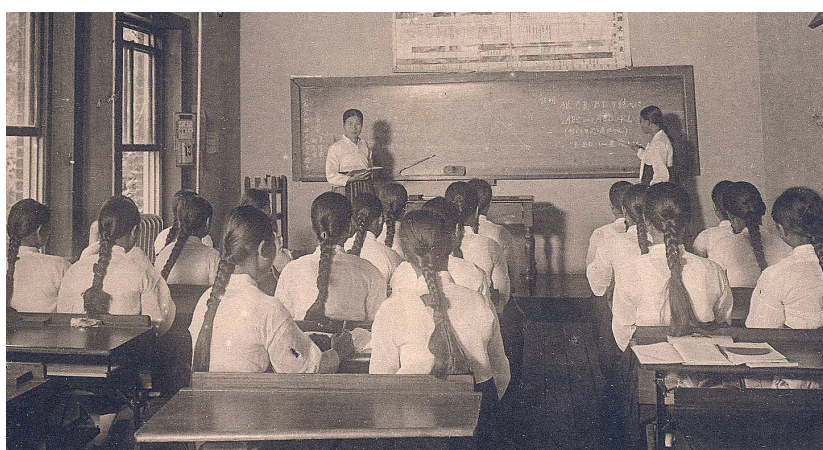
들만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이 유대인 성공의 비밀이었다. 참석한 모든 부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길 다짐했다. 또한, 아이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길 소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태욱 전도사**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 기독교의 역사 42

일제하 미북장로회선교부 교육사업 인퇴(引退)(22)

정신여학교 폐교



1937년, 정신여학교 수업 광경

1941년 3월, 새로운 학교 인계 희망자, 세브란스의학전문 교수 김명선(金鳴善)이 나왔다. 이미 경신학교를 인계한 사람이었다.

6월말, 한국선교부는 아직 한국인에게 인계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모두 교육 인퇴를 시키기로 하였다. 그러므로 김씨 문중의 정

신여학교 인계도 무산되고 말았다.

11월 16일, 대부분 선교사들이 일제와 미국의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미국 정부에서 보낸 마리포사호(The Mariposa)를 타고 귀환 하였다.

12월 8일, 태평양 전쟁 발발. 남아 있던 선교사는 적성국가 국민으로 분류되어 구금되거나 억류되었다.

12월 22일, 일본의 적산관련법에 의해 미북장로회 선교재산이 총독부 관할로 넘어감에 따라 정신여학교도 일본의 소유로 되었다. 미 북장로교계 8개 학교 중 정신여학교를 제외하고는 이미 폐교되거나 한 국민에게 인계되었으므로 적산으

로 편입된 학교는 정신여학교 이외는 없었다.

1944년 6월, 정신여학교, 친일의 민대식의 재단법인 풍문학원에 전학년 4학급이 인수 되었고, 손자인 민덕기가 이사장에 부임하였다.

11월, 한영진 교장 퇴임. 일본인 사라가미(白神壽吉)가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3월 19일, 학교를 안국정 경성휘문학교로 교사(校舍)를 옮기고 당국에 고등여학교를 신청하여, '경성 풍문고등여학교'로 되면서 정신여학교는 폐교.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아기나들이



노건우 아기 2017년 1월 2일생

1.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아이로 자라게
2.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게
3. 범사에 감사할 줄 알며 용기와 지혜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아빠 노상철 / 엄마 유경주, 2017년 5월 14일 2부 예배



김제인 아기 2017년 1월 14일생

1. 꽃처럼 아름답게
2. 흙처럼 겸손하게
3. 벌처럼 성실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아빠 김재휘 / 엄마 김슬기, 2017년 5월 14일 3부 예배



조유현 아기 2016년 12월 21일생

1. 하나님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게
2.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게
3.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아빠 조영만 / 엄마 이민지, 2017년 5월 14일 3부 예배

교회단신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

2017년 5월 21일 주일 오후에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에서는 신망애복지재단(호세아 동산)에서 찬양예배를 드렸다. 전체합창과 남성 4중창과 소프라노 독창 등 아름다운 하모니가 신망을 가득 채웠다. 찬양을 마치고 각 생활관의 기독교인 가족들에게는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나누었다. 신망애 복지재단은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한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는 장애인 시설이다.

함줄함울



미시오데이 선교찬양대가 받은 감사편지들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교회단신

모세 2팀 및 직장인 중보기도

중보기도부 월례회는 팀원 간에 월례회를 통해서 영적인 충전과 중보기도 사명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간증을 나누는데, 토요모임은 직장인과 모세2팀은 평일에 시간을 갖기 어려운 기도 사역자들이 사명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졌다.

매달 첫 주 목요일에 열리는 중보기도 월례회에 참석 못하는 중보기도자는 둘째 주 토요일 새벽 6시 30분부터 5층 제1집회실에서 모인다. 모세 1,2팀은 남자 중보기도자팀으로 주로 주말에 릴레이 기도에 참석한다. 직장인 교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며 이른 새벽 우리 가슴을 깨우는 귀한 시간에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함줄함울



기도회

군경 입대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열리는 군경 입대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가 지난 5월 30일에 열렸다. 하나님 손길에 대한 고백 속에 믿음으로 군생활 잘 견뎌내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할 몫을 잊지 않고, 선임자와 동료들과 좋은 관계로 제대하는 날까지 넉넉히 이겨내는 믿음 갖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나라와 새로 들어선 정부가 남북한 대치 속에서 많은 국내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기도드렸다. 군경 선교팀에서는 6월 10일(토)에 22사단(강원 고성)으로 신병 진중 세례식에 다녀올 예정이다. 6월 기도모임은 6월 27(화) 오전 10시 30분에 드려진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 새가족 환영회

일시 : 6/4(주일) 오후 3:30 새가족실(4층 대회의실)

대상 : 5월 새가족 교육 수료자

2. 예수친구사역 전체 세미나

일시 : 6/9(금)~10(토) 오후 6:30 중예배실(지하)

대상 : 예친사 전 기수(뿌리~6기)

문의 : 박주영 전도사(010-3347-0390)

3. 제4회 통일선교학교 2주차

일시 : 6/8(목) 오후 7:30 소년부실(3층)

주제 :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 바라보기

강사 : 오성훈 교수(PN4N 대표, 송실대)

4. 해외 비전트립 물품 후원

기간 : 5/21~6/11 매 주일 오전 8:30~오후 2:00

사역물품 : 선교사 요청 물품

문의 : 박석진 안수집사(010-5092-8577)

* 제품 일괄 구매 및 세관 통관상 어려움이 있어서 가능하시면 현금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후원 : SC제일은행 204-20-112255 주님의교회